

증권 거래 시 공인인증서 계속 이용 가능

»» 팩트체크

코스콤에 대한 사실과 다른 뉴스나 정보를 바로 잡아 드립니다.

- 금융투자업계 SignKorea 인증서, 증권사에서 기존처럼 사용 가능
-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, 발급과 갱신도 정상 유지



금융투자업계 SignKorea 인증서는 증권사에서 기존처럼 사용 가능하다.

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'공동인증서'로 명칭만 바뀌게 되고,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,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. 따라서, 코스콤 SignKorea 인증서 또한 10일 이후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.

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되고, 발급·갱신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.

일부 투자자들은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혼란이 커지고 있으나 SignKorea 인증서 이

용 고객들은 사용상 달라지는 점이 없다. SignKorea 서비스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로 증권사 로그인과 주식 주문,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신규발급과 재발급, 갱신도 모두 가능하다. 공인인증서의 명칭만 ‘공동인증서’로 변경 되는 것으로 사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.

또한, SignKorea등 공동인증서는 한 장으로 여러 기관에서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.

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의 경우, 기존처럼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인증제도 변경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일 뿐 기존 인증서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. 코스콤 디지털인증사업단 김계영 단장은 “새로운 인증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, 앞으로도 기존 공인인증 서비스를 ‘공동인증서’ 형태로 정상 제공한다.”며, “6자리 숫자, 생체, 패턴 등 간편인증 및 PC 원격인증(PC 로그인)을 적용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대폭 늘린 MyPass(마이패스, mypass.signkorea.com) 이용 확대를 통해 불편사항을 차차 개선해 나갈 것.”이라고 말했다.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